

5월4일(월) 누가복음2:21-39

제목: 곧 죽을 아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난 지 팔일 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 지었다(21절) 그리고 산모의 정결의식을 위해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22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래 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려 온 시므온(25절)이라는 자가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린 후(29-32절) 그 모친 마리아에게 아이에 관한 비밀 하나를 들려준다.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34-35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35절)는 말은 자식의 죽음으로 장차 어머니가 겪게 될 고통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곧 그 아이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잔인하게 죽을 아이라고 한다. 이 비밀을 전해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칼끝으로 그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 머지않아 아기 손에는 못을 박으시고, 그 어머니 가슴에는 대못을 박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5월5일(화) 누가복음2:40

제목: 어린이 예수

유년기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였다. “자라며” 라는 말은 어린이 예수가 한 살씩 두 살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여지고’ 즉, 육체적으로 강해졌다는 말이다. 어린이 예수는 건강한 아이였다. 또 그는 육체적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혜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깊은 영성도 갖추었다.(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린이 예수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성장해나갔다. 여기에 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세 요소가 있다. 육체적 건강함, 탁월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영성이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체적인 면, 지적인 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이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일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만 된다면 그 아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될 것이다.

5월6일(수) 누가복음2:41-52

제목: 인간적이신 예수님

소년 예수가 열두 살 때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와 길이 엇갈렸다. 가까스로 아들을 찾은 마리아가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48절) 다그치자 소년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었다” (49절)고 말했다. 이 말은 소년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천명한 말씀이었다. ‘어찌 날 더러 아들이라 하십니까? 나는 그동안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데요. 나의 출생의 배경을 잊으셨습니까?’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소년 예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51절) 소년 예수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였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부모를 잘 받드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은 인간적 삶에 충실하였다. 그는 기도 자랐고, 인격도 더 자랐다.(52절)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셨다. 그는 인간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인간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 중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친구 쯤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

5월7일(목) 누가복음3:1-2

제목: 골방 만들기

세례요한은 자신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들판에 앉아서 기다렸다(2절) 들판에서 보낸 이 시간은 세례요한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다. 이 들판에서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들판은 고독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우리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일상에 바쁜 우리가 들판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만나는 들판으로 만들 수는 있다. 우리 가정의 한 귀퉁이를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으로 만들면 된다. 모든 일과를 마친 뒤 TV를 끄고, 세상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잠시 닫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이 골방으로 들어 가보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한한 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신다. 이 골방에 출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된다. 골방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준다.

5월8일(금) 누가복음3:3-6

제목: 매일 자복하세요

세례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4절) 유독 회개를 많이 강조하였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절)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회개’는 ‘죄 사함’과 연결되어있다.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세례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에게 메시아를 영접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회개는 모든 죄악을 없앤다.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회개 없이 깨끗해질 자가 없다.(6절) 우리는 매일 많은 죄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산다. 우리 마음의 창문은 먼지로 인해서 항상 더럽혀진다. 이 더러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는가? 매일 죄를 자복해야 한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처음 믿을 때 한번의 회개로 평생을 깨끗하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해 볼 때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